

메시지 3

바르는 거룩한 기름인 복합된 관유의 내재적인 의미와 계시 —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완전한 예표

성경: 출 30:22-30, 고전 15:45하, 요 7:37-39, 빌 1:19

- I.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올리브기름과 네 가지 향료로 만들어진 복합된 관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의 완전한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러한 영이 되셨다 — 출 30:22-25, 고전 15:45하, 요 7:37-39, 빌 1:19.
- A. 이 복합된 바르는 기름의 성분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액체 몰약은 죽은 이를 장사할 때 사용되었으며(요 19:39),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상징한다(롬 6:3).
 - a. 몰약은 또한 죽음의 고통을 경감하는 진통제로 사용되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분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몰약 섞은 포도주를 그분께 드렸다 — 막 15:23.
 - b. 몰약은 또한 몸에서 어떤 좋지 않은 분비물이 나올 때 그러한 몸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우리의 인간 생명에는 좋지 않은 여러 분비물이 있지만,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죽음은 이 문제를 고친다.
 2. 향기로운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달콤함과 효능을 상징한다 — 롬 8:13.
 - a. 육계는 약한 심장을 자극하기 위한 약으로 처방되었다.
 - b.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내적 존재에 적용할 때, 우리의 심장 곧 우리의 마음은 자극을 받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된다 — 빌 4:4, 느 8:10.
 3. 향기로운 창포는 높이나 진흙에서 위를 향해 자라는 일종의 갈대에서 얻어지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부활을 상징한다 — 엡 2:6, 골 3:1, 벧전 1:3.
 4. 계피는 고대에 곤충과 뱀을 쫓는 데에 사용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쫓아내는 능력을 상징한다. 계피는 모든 악한 ‘곤충들’을 쫓아내며, 특별히 옛 뱀 마귀를 쫓아낸다 — 빌 3:10.
 5. 올리브기름은 복합된 관유의 주성분으로서, 복합되신 영의 주성분이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 창 1:2.
- B. 숫자 4는 피조물을 상징하는데(겔 1:5), 이 피조물의 머리가 사람이다(창 1:26). 숫자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신 4:35, 딤후 2:5). 그러므로 네 가지 향료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올리브기름 한 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성을 상징한다. 따라서 올리브기름과 네 가지 향료를 섞는 것은 복합되신 영 안에 하나님과 사람, 신성과 인성이 복합되고 연합된 것을 상징한다 — 레 2:4과 각주 2.
- C. 올리브기름과 네 가지 향료는 모두 눌러 짜거나 자르는 과정을 통해 준비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들을 통해(마 26:36)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것을 상징한다(롬 8:9).
- D. 더욱이 이 네 가지 향료는 오백 세겔의 온전한 단위 셋을 이루었고 가운데 오백 세겔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은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과, 삼일성의 둘째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나누어지신 것’을 상징한다.
- E. 성경에서 5는 책임의 숫자이기 때문에(마 25:2과 각주 1), 복합된 관유의 다섯 가지 요소와 각각 오백 세겔로 이루어진 세 단위의 네 가지 향료는 책임을 지는 능력과 역량이신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 F. 숫자 3과 5는 하나님의 건축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참조 창 6:15 각주 2), 복합된 관유에 있는 이 숫자들은 복합되신 영 안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 G. 이러한 의미들에 근거할 때, 네 가지 향료와 올리브기름을 복합하여 바르는 기름을 만든 것은,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기 위하여 복합되신 영을 산출하는 것을 상징한다.

II. 복합된 관유인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 제단과 그 모든 집기, 물두명과 그 받침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르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모두를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고 분별하였다 — 출 30:26-30, 벤전 1:2, 고전 6:11, 롬 15:16.

- A. 이 관유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므로써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영이 되시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에게 도달하시고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기름 바르시어,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상징한다 — 요 20:22, 요일 2:20, 27, 고후 1:21, 고전 6:17.
- B. 이러한 기름바름은 복합되신 영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으로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한 우리의 내적 존재에 더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요소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한다 — 골 2:19.
- C.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에 바르기 위한 것이다(비교 벤전 2:5).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를 위하는 이들만이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누릴 수 있다.

III. 올리브기름으로 상징되시는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단순한 기름이 아니시며, 이제는 어떤 성분들과 복합된 기름이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 A. 이것은 주님의 영광스럽게 되심, 곧 주님의 부활(눅 24:26) 이전에는 복합되신 영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러한 영의 복합 혹은 조합이 완성되었다.
- B. 그 영께서 하나님의 영이셨을 때는 신성한 요소만 갖고 계셨다.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후에, 그 영은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모든 본질과 실재를 가지셨다.
- C. 바르는 거룩한 기름으로 예표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복합되신 이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 곧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이시며, 이러한 공급에 의해 우리는 몸 안에서, 몸을 통하여,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분을 확대할 수 있다 — 빌 1:19-21상.

IV. 복합된 관유,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기름 발라지셨다. 시편 133편 2절은 어떻게 바르는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그의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미치지지를 묘사한다. 이것은 그 영께서 온몸에 기름 발라지시는 것을 상징한다.

- A. 하나라는 터는 바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 곧 복합되신 영으로서 우리의 존재에 적용되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 시 133:1-3.
- B. 관유로 ‘페인트칠’되기 위해서(요일 2:20, 27), 우리는 반드시 교회와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는 기름과 함께 그 모든 요소의 적용을 자연스럽게 누릴 것이다. 이 관유가 적용되어 산출된 이 하나는 얼마나 놀라운지!